

'2020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 MBC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2.25	서면회의	5	8	

○ 코로나 19 바이러스 국면으로 인해 서면회의로 전환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

김병구 위원, 양홍모 위원, 이규홍 위원, 김종남 위원, 송은영 위원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2	4	-	1	7	-	7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7	-	-	7

다. 전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7 건	7 건	
교양	<전국이 보인다> 뉴미디어 콘텐츠 이미지 개선안 제안	담당부서 의견 전달, 개선안 시행 <20.2월 조치>	'20.1월
교양	<자연을 품은 도시, 대전> 수려한 영상과 자연에 대한 중요성 강조	제작진 전달 <20.2월 조치>	'20.1월
교양	<생방송 아침> 우리지역 코너 강화	현재 다양한 지역관련 코너 운영중, 개편시 이에 대한 반영 <20.2월 조치>	'20.1월
교양	<내가 그리는 세상> 제작부분의 디테일 강화	제작팀 미팅을 통한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시 반영 <20.2월 조치>	'20.1월
교양	<건강플러스> 건강 프로그램에서의 채식에 대한 소개	음식 및 채식에 대한 의견 반영 <20.2월 조치>	'20.1월
보도	<시시각각> 패널 선정 및 진행자의 품격있는 진행	패널선정 부분은 제작시 반영하여 개선효과를 보임. 진행자 주문 전달 <20.2월 조치>	'20.1월
보도	<뉴스데스크> 성폭력 관련 기사 방송시 보다 면밀한 검토	성폭력 관련 보도물 제작시 반영 <20.2월 조치>	'20.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성 명	전 · 현직	변동사유	비고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대전 MBC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 운영실적 및 회의록 전문공개	인터넷

나. 시청자위원 명단

- 임정규 위원 의 공무원 임용에 따라, 위원 자격 상실. 임정규 위원의 추천단체인 여성정치네트워크의 추천(대전MBC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름.)으로 후임 송은영 위원 임명.

해촉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대전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	19.05.01 ~ 20.01.30
위촉	송은영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여성단체	19.02.25 ~ 20.04.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김선재	배재대학교 총장	한국콘텐츠학회	문화단체	19.05.01 ~ 20.04.30
부위원장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9.05.01 ~ 20.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9.05.01 ~ 20.04.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	김병구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9.05.01 ~ 20.04.30
위원	박상민	정보철강(주) 부사장	미래경영인모임	경제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서한나	잡지 Boshu 편집장	청년 고리	문화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이규홍	안정성평가연구원 본부장	한국독성학회	과학기술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송은영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대전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	20.02.25 ~ 20.04.30

** 신임위원 경력사항 및 추천서 별도 첨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1. 교양 : 크리에이터성장기 독전 2</p> <p>시즌 1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콘텐츠 크리에이터 성장기 ‘독전’을 처음으로 시청해보았는데, 그 내용과 구성이 신선하여 좋았습니다.</p> <p>‘금산별곡’과 ‘어부대전’의 콘텐츠 대결을 주로 시청했는데 50여 분간의 러닝타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전개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유선방송과 지역방송의 접근성을 넘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계층에게 전략적인 홍보로 많은 시청자가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김선재 위원장)</p> <p>1월 28일, 2월 4일, 11일 ‘금산별곡 VS 대전어부’ <나는 자연인이다>를 연상시키는 ‘금산별곡’과 <도시어부>가 떠오르는 ‘대전어부’는 비슷하면서도 대비되는 소재와 배경이어서 흥미로운 구성이었다고 생각됨. 시즌 1보다 한층 여유롭고 웃음의 포인트를 살리는 등 진화된 모습들이 포착됨.</p> <p>2월 18일 ‘시를 발로 쓰는 남자 이준영’ vs ‘레트로 듀오 오드리 양장점’ 새싹 크리에이터의 특성에 부합하는 패널이 섭외되어 방송 내용이 매끄러웠음. (가수 요요미,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 그러나 ‘시를 발로 쓰는 남자’에게는 특화된 코멘트를 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점, 이미 귀촌 채널을 운영하고, 구독자가 2만인 크리에이터에게 굳이 코디가 필요한지 의문이며, 코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정당성 제시가 부족. (양선희 위원)</p>	<p>-매회 완결 구조가 아닌 이상 전편에 대한 이해 또는 다음이야기 영상이 필요한데에 동의합니다. 스튜디오 녹화 지적까지 포함,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p> <p>-시를 발로 쓰는 남자의 경우 기존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이와는 레벨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코디를 통해 성장을 유도한다는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기획의도에 충실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청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재미적인 요소도 갖춰야한다고 본다</p> <p>면 시를 발로 쓰는 남자와 같은 섭외도 때로는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로 그 취지를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2. 교양 : 다큐에세이 그 사람</p> <p>‘청춘, 국악의 판을 바꾸다’ 편. 국악의 대중화를 꿈꾸고 이끄는 국악인 ‘이윤아’의 이야기로 구성하였는데, 젊은 국악인의 현실적인 고민과 그녀가 이루고 싶은 ‘국악 대중화’의 바람까지 담담히 잘 담아내고 있는 구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p> <p>기존 프로그램들에 많이 다뤘던 국악 명창이나 전수자들의 모습이 아닌 20대 풋풋한 국악인의 이야기를 담은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국악의 대중화에 관한 고민을 나누는 친구들과의 대화나 팬클럽들의 모습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p> <p>다만 ‘퓨전국악’이라는 장르를 소개하며, 좀 더 보충 설명이 있으면, 시청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권부남 부위원장)</p>	<p>시청자를 위한 배려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매체를 통해 유명세를 확보한 주인공이지만 국악 아이돌이라는 용어 자체조차 생소한 시청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 제작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청과 지적 감사합니다.</p>	○		
편성	<p>3. 교양 : 내가 그리는 세상 - 생활 속 자연보호</p> <p>공주대 영상학과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진과 간단한 삽화를 통하여 보기 쉽게 전달하고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p> <p>환경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면서 누구나 쉽게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영상으로 잘 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박상민 위원)</p>	<p>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4. 교양 : 건강플러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8일 건강밥상 호두크림스프/호두롤 바나나프라이드 - 2월 15일 건강밥상 굴 새우 샐러드/굴 추러스 - 2월 29일 건강밥상 마파두부 반미/두부튀김 크림마요 <p>메인 요리에 호두, 굴, 두부 등 동물성식품이 아닌 것들이 쓰여 반가웠다. 최근 한국의 식문화에서 자주 발견되는 단어는 ‘비건’이다. 온라인 식재료마켓인 헬로네이처나 마켓컬리에서는 ‘비건’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정도다. 롯데리아에서는 패티와 소스, 빵 모두에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버거 ‘미라클버거’를 출시했다. 비건은 단계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류, 육류, 알류를 포함해 동물성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p> <p>서울을 중심으로 비건식당, 베이커리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부터 대전에도 비건 베이커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비단 비거니즘의 철학을 알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비건’들 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다.</p> <p>비거니즘은 동물권과 연동되는 개념이다.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이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닌 삶의 파트너가 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물권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건강한 식생활과 동물권에 점점 관심이 많아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비건’을 특집으로 방송을 구성해보는 것이 어떨까. 대전에도 비건 식당과 비건 베이커리가 많이 있고, 전문가 섭외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서한나 위원)</p>	<p>시청 타깃이 중장년에 맞춰진 노인성 질환과 같은 주제에 비건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일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 질환과 같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제를 다룰 경우 비건 음식과 같은 건강밥상은 나름 괜찮은 시도로 보일 것 같습니다. 제작진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5. 보도 : 노정렬의 시사각각</p> <p>아직 국내 확진자가 많지 않을 때 코로나19 환자 증상, 검사기관 정보(1339콜센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예방대책 등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시의적절한 방송이었습니다.</p> <p>패널로 대전시 보건복지부 국장, 의학전문가, 바이러스전문가가 출연하여 잘 설명해줌으로서 생소한 코로나19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p> <p>특히, 코로나19의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대해 의학전문가가 바로잡아주는 시간을 가진 점 좋았습니다. (박상민 위원)</p> <p>전국 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꽉 채워지면서 다른 소식을 듣기 힘든 상황인 가운데, 본 방송에서는 사태 이후에도 꼭 다루어야 할 이슈들이 다양하게 등장했다. 2월 2일 토론 주제였던 ‘대전하나시티즌 출범’은 축구에 관심이 없더라도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이슈인데 대전MBC에서 다루 주어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한 의의가 있다.</p> <p>2월 9일 토론 주제는 ‘코로나바이러스’였다. 지역사회의 대응이 중요한 만큼, 대전시 보건복지국은 어떠한 대응체계를 세우고 있는지 궁금했던 시청자들에게도 본 방송이 도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p> <p>다만 출연자의 면면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인가 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요소이니 시기에 관계없이 중요하다. 의료와 보건 계열을 대표하는 이들이 전원 남성은 아닐 것이다.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보건계열에 종사하는 여성이 한 명이라도 함께했다면 조금 더 균형감이 느껴지고, 시청자들의 올바른 인식에도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든다.</p> <p>패널 섭외와 관련해 2월 16일 구성은 의미 있었다. 나이가 같다고 해서 모두 같은 입장과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듯 18세 안에서 다양한 패널을 섭외한 것이 눈에 띈다. (서한나 위원)</p>	<p>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아이TEM은 균형감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객관성과 정보 전달의 기능을 견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p> <p>현재 전문가 풀을 분석하면, 일률적인 성비 균형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패널에 있어서의 남녀 성비 균형은 제작팀 내부에서도 항상 염두에 두는 부분입니다. 시간여유가 많지 않은 급박한 제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을 더 심화되고 있어, 사전 전문가 풀에서의 여성비율 확대가 기본 과제중 하나입니다. 여성 전문가 풀은 저희가 확장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조의 반영이며, 사회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풀에서 여성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계의 노력과 사회의 반영이 선결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성전문가의 부족은 비단 대전MBC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한국방송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전MBC에서는 이러한 현실여건에서도 보다 나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6. 보도 : 뉴스데스크</p> <p>1. 2월 5일 ‘대전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10%대’ - 대전 지역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을 제시하며 ‘조승래 의원이 98.59%로 가장 높고, 이상민, 이상우 의원이 85.21%로 가장 낮았다’고 보도 - 전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비교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 방송 권역을 고려한다면 충남과 세종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동일 정보도 제공되어야 함. 시청자 중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할 수 있음</p> <p>2. 2월 6일 ‘대전·세종·충남 열화상 카메라 운영 0곳’ - 전국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열화상 카메라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대전시로 하여금 신속하게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도록 유도한 점에서 긍정적 (2월 18일 뉴스에서 대전시 주요 역과 터미널에서 열화상 카메라 운영 시작 보도)</p> <p>3. 2월 7일 <집중취재> ‘뉴트로’ 재개발의 그늘... 빈집이 10억 호가 - 중요하고 시의적인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심층성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음. 前 쪽방촌거주자의 인터뷰를 제외하면 실제 사례들이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나 현상 그 이상의 이슈나 쟁점이 부족 -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월) 보도에서 대전시장이 원도심 재개발 부작용에 대한 대책기준 마련을 지시했다는 후속 보도가 있었던 점은 다행</p> <p>4. 2월 11일 ‘오스카 쾌거... 대전 영화산업도 훈풍’ - 영상관련 인력 양성이나 일반인들의 영화/영상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변화 등도 함께 제시해주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이 요구됨</p> <p>5. 코로나 19 관련 보도 - 감염 확산 현황이나 지역 사회 감염 우려, 아산 격리 시설 관련 보도, 지역 경제 타격 등을 중점 보도 -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보도 외에 보건의료체계나 음압병상 현황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점검 등으로 시청자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의 보도가 아쉬웠음. (양선희 위원)</p>	<p>코로나19 관련해서는 단순한 확진환자 추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등 입체적인 취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 국면에 맞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를 발굴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총선이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제 분석 등 유권자들에게 최소한의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총선 아이템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7. 기타 : 우리 동네 예비후보 미리 만나보기 (유튜브)</p> <p>코로나로 전국의 모든 뉴스와 기사가 도배된 상황에서도 대전지역 총선과 관련된 선제적인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송사에 비해 출마의사를 밝힌 대전 지역 내 예비후보의 5-6분 가량의 PR영상을 담겨 있어 부담 없이 시청해보았습니다.</p> <p>지역구별 공천과 출마 후보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관심과 환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콘텐츠를 검색하려면 대전 MBC를 검색하거나, <우리동네 예비후보 미리 만나보기>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름을 검색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내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전 총선], [대전 대덕 총선] 등 구체적인 검색어를 통해 접근하는 것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선재 위원장)</p>	<p>위원장님의 세세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전MBC의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현재 신설 부서인 스마트미디어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예비후보>는 스마트미디어부가 진행 중인 제21대 총선 스마트 선거방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력 부족 등으로 대전 지역 예비후보 20명(선거구 및 후보별 형평성 고려)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동네 예비후보> 콘텐츠의 경우 총 5만6천3백여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선전했습니다. 스마트미디어부는 총선 기간 <시민 참여형 총선 의제 대담>과 <우리동네 후보 모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선거 당일인 4월 15일에는 18시간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해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입체적인 선거 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p> <p>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p>	○			